

한국소비자, 1년 이내에 닭고기 수입으로 값싼 미제 닭고기 먹게 될 듯

◇…본고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주간 Feedstuff 4월 2일자에 게재된 내용으로 지난 3월 21일 한미 정부간에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내용을 미국측 시각에서 다루고 있어 전문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쇠고기 수출 국가-시장 개방을 요구 ; 한국,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다

쇠고기 주요 수출국 4나라는 수입 자유화와 육질과 안전성기준을 통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 4개국은 미국의 NCA(THE NATIONAL CATTLEMEN'S ASSN.), 캐나다의 THE CANADIAN CATTLEMEN'S ASSN., 오스트레일리아의 THE CATTLE COUNCIL OF AUSTRALIA, 그리고 뉴질랜드의 THE NEWZEALAND MEAT PRODUCERS BOARD로 구성되어 있다. 10년 동안 18개월 주기로 만나고 있는 이 모임은 이번에는 뉴질랜드의 ROTORUA에서 회의를 가졌다.

NCA의 회장 JOHN LACRY는 이번 회의를 “요 근래에 가장 의미있는 것이었다”고 말했고, 각국 대표들도 “세계적으로 더욱 확신시킬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힘을 합할 것”을 다짐했다 한다.

그리고 NCA의 성명을 통해 발표되었듯이 최근 편협한 정책으로 치닫고 있는 다변화 무역협상에서의 미국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대표단은 어떠한 불공정 무역관례에도 반대한다는 주장을 했고, NCA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LACEY는 수요 공급에 따른 가격 결정을 내세우며, “우리 회원국은 경쟁국들로 하여금 자유시장 경쟁을 허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고 생각한다”며 그의 의견을 피력했다.

NCA에 따르면, 대표단은 미국의 농무성에서 사용했던 쇠고기 검사 기준제도를 지지하면서 검사기준은 과학과 기술에 의해 정해져, 세계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 시장에서 긴밀한 협조아래 이루어지는 정책을 세울 것을 고려했으며, 가축의 건강 안정성, 그리고 환경중 여러가지 다른 논점들에 관하여도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다.

한국 시장

THE AMERICAN MEAT INSTITUTE(AMI)는 한국의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에 관한 미국과의 협상이 한국시장에서 수입규제를 푸는 것으로 성공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보고했다.

AMI에 따르면 협정의 주요 내용은

“앞으로 7년반 동안 한국의 시장을 개방시킬 것”
“올해에 58,000M/T 수입을 허용했던 기준치는 1991년에 62,000M/T, 1992년에는 66,000M/T로 변할 것이며, 그 이후에도 협상하에 더욱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고, “실소비자와 납품업자

가 제품의 특성과 운반 그리고 다른 여러가지 것들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협상할 것을 허용하는 것” 등이다.

AMI는 한국에서 1985년 쇠고기 수입을 규제한 후에 1988년부터 한국에 대해 쌓인 301조의 불만사항으로 인하여 가격폭등이 발생했다며, 회장 PATRICK BOYLE씨는 이 조항을 “장기화되는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또한 AMI는 한국이 1988년부터 무역규제를 조금씩 풀고 있으나 아직도 몇몇 기계와 수입품을 사들이는데는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이번 관세와 무역협정회의는 지난 4월에 토론되었던 AMI의 불만들을 해결하는 데 실마

리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4월 27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미국의 보복조치는 하지 않기로 서명날인 했다고 발표 했다.

일본 시장

일본의 가축생산자들은 1991년 4월부터 시작되는 일본의 쇠고기 수입자유화 조치에 따른 피난처를 찾고 있다.

육우산업의 보고에 따르면, 일본의 농협중앙회는 정부가 쇠고기의 생체와 도매가격에 있어 정책가격을 마련해 주도록 요구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쇠고기 수입개방 조치, 한국에 닭고기 수입도 유도하게 될 것 같다

한국이 미국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시장에 미국의 닭고기들도 수입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미국의 양계와 달걀 등은 소량의 칠면조와 오리만 제외하고는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

쇠고기 수입개방 조약의 소식을 듣고 미국 NATIONAL BROILER COUNCIL(NBC)의 경제학자 BILL ROENIGK씨는 “올바른 결정이며 우리에게도 앞으로 수입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 USA POULTRY & EGG EXPORT COUNCIL의 이사였고, 지금은 아틀란타의 수출회사인 WORLD LINK의 사장인 JOHN LANGWICK씨는 비육업자들처럼 “생산자, 판매자 그리고 관계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양계도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며 한국정부가 양계수입도 개방할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만 된다면 한국은 높은 질의 닭고기 수출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만일 한국이 미국의 양계제품도 받아들여진다면 정말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만일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국이 1년 이내에 닭고기 수입을 허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BEVCO INTERNATIONAL의 회장인 BODDY YEISER도 한국이 겨우 1년전에 칠면조와 오리 수입을 허용했던 것을 지적하면서 “쇠고기 수입 허용은 닭고기 수입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일”이라고 했고, NBC의 ROENIGK씨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것은 닭고기 수입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며, 그것은 한국내 생산보다 싼 가격으로 닭고기를 구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FEEDSTUFF 4월 2일자에서〉